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강 승 복*

I. 머리말

통계청은 지난 10월,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매년 8월을 기준으로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임금 및 사회보험,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근로상태를 보다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별한 후 2002년 이후 3년간의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 및 각종 사회보험 가입실태의 현황과 변화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비정규직의 정의

이 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의 기준은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¹⁾의 내용에 의거하였는데, 현재 노동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데 ① 한시적 근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연구원(kangsb@kli.re.kr).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합의문(제1차)」, 2002. 5.

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되고 있는 한시적 근로자, 일일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독립도급근로자, 가내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기로 한다.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비정규직 정의

비정규직의 종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정의
한시적 근로자	- 고용계약여부를 예라고 답한 자 또는 고용계약여부를 아니오라고 답한 자 중 근로 지속이 가능한 이유가 계약의 반복갱신이라고 답한 자 - 고용계약여부를 아니오라고 답한 자 중 근로지속여부를 아니오라고 답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① 계약만료, ② 계약종료, ③ 조건부 채용, ④ 하던 업무종료, ⑤ 전에 사람 복귀, ⑥ 특정계절만 일함이라고 답한 자
일일근로자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일함 여부를 예라고 답한 자
파견근로자	임금지급업체가 파견업체라고 답한 자
용역근로자	임금지급업체가 용역업체라고 답한 자
독립도급근로자	독립도급근로 여부를 예라고 답한 자
가내근로자	근무장소를 가정에서라고 답한 자
시간제근로자	근로시간의 형태를 시간제근로라고 답한 자

Ⅲ.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2005년 8월²⁾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정규직 9,263원, 비정규직 6,526원으로 나타나는데,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0.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년인 2004년의 73.5%보다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되었다.

한편, 전년대비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정규직이 2004년 7.6%에서 2005년 5.8%로 소폭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2004년의 10.6%에서 2005년에는 1.3%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05년 들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이 1,846천원, 비정규직이 1,156천원을 받

2) 이후 8월은 각년도 8월 현재 지난 3개월간(6~8월) 평균값을 의미한다.

고 있으며 임금상승률 추이는 시간당 임금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당근로시간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은 2005년 들어 소폭 줄어들었다.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의 주당근로시간은 49.2시간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44.5시간보다 4.7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원/시간, 천원/월, 시간/주, %)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2005년 8월
시간당 임금(원)	전체 임금근로자	6,572 (-)	7,386 (12.4)	7,900 (7.0)	8,260 (4.6)
	정규직	6,942 (-)	8,139 (17.2)	8,756 (7.6)	9,263 (5.8)
	비정규직	5,589 (-)	5,824 (4.2)	6,440 (10.6)	6,526 (1.3)
월평균 임금총액 (천원)	전체 임금근로자	1,325 (-)	1,466 (10.7)	1,542 (5.2)	1,593 (3.3)
	정규직	1,456 (-)	1,678 (15.3)	1,771 (5.6)	1,846 (4.2)
	비정규직	977 (-)	1,028 (5.3)	1,152 (12.0)	1,156 (0.4)
주당근로시간 (시간)	전체 임금근로자	49.3 (-)	48.5 (-1.6)	47.8 (-1.4)	47.5 (-0.7)
	정규직	51.1 (-)	50.2 (-1.4)	49.7 (-1.2)	49.2 (-0.9)
	비정규직	44.9 (-)	45.0 (0.1)	44.7 (-0.6)	44.5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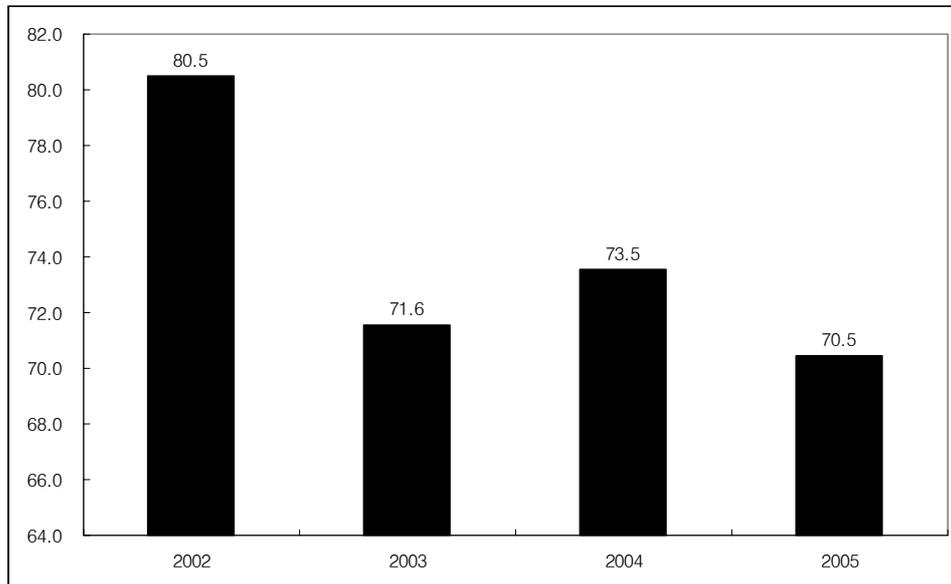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소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

(지수 : 정규직 시간당 임금=100.0)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다시 노조가입 유무별로 세분하여 보면³⁾ 노조를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2,351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어 비정규직 노조가입 근로자, 정규직 노조미가입 근로자, 비정규직 노조미가입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이면서 노조미가입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이면서 노조를 가입한 근로자 임금의 5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다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면 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4,046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 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이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면서 대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2.9%에 그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 노조미가입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노조가입 근로자가, 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임금시장에서 노조 효과 및 사업체규모 효과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다시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정

〈표 3〉 정규·비정규직별, 노조가입·미가입별 시간당 임금(2005년 8월 현재)

(단위: 원/시간, 정규직 노조가입=100.0)

	노조미가입	노조가입
정규직	8,679 (70.3)	12,351 (100.0)
비정규직	6,382 (51.7)	9,513 (77.0)

주: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균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2005. 8.

〈표 4〉 정규·비정규직별, 규모별 시간당 임금(2005년 8월 현재)

(단위: 원/시간, 정규직 대규모=100.0)

	중소규모(300인 미만)	대규모(300인 이상)
정규직	7,994 (56.9)	14,046 (100.0)
비정규직	6,032 (42.9)	10,572 (75.3)

주: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균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2005. 8.

3)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① 노동조합이 없음,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④ 가입함의 4가지로 묻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①, ②, ③의 경우를 노조미가입 근로자로 정의하였다.

규직 남성의 임금이 시간당 10,850원으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가장 높은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 52.2%에 불과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규직 여성보다 비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임금결정에 있어 성별 효과가 정규·비정규직 효과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5〉 정규·비정규직별, 성별 시간당 임금(2005년 8월 현재)

(단위: 원/시간, 정규직 남성=100.0)

	남 성	여 성
정규직	10,850 (100.0)	6,596 (60.8)
비정규직	7,393 (68.1)	5,663 (52.2)

주: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총액÷(주당 평소근로시간×4.3)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2005. 8.

IV.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소득 분배상황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2005년 8월 월평균 임금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소폭 상승한 0.333을 기록하여 임금소득 분배상황이 약간 악화되었다. 이를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은 지니계수가 소폭 증가하여 임금소득 분배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고용형태별 임금소득의 지니계수 추이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2005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0.319	0.329	0.329	0.333
정규직	0.292	0.296	0.295	0.298
비정규직	0.355	0.345	0.348	0.347

주: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균등,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V.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여러 격차 중 앞에서 살펴본 임금 및 근로시간, 소득분배보다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각종 사회보험 가입실태이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대보험의 가입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그것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도 이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50~60%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건강보험의 가입률이 가장 높고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75.7%인 것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36.6%로서 절반에 못미치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75.9%, 비정규직은 37.7%로서 역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정규직 63.8%, 비정규직 34.5%로서 위의 2가지 사회보험보다는 정규·비정규직간 격차가 작긴 하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수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자 및 비율

(단위 : 천명, %)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2005년 8월
국민연금	전체 임금근로자	7,392 (52.7)	8,163 (57.7)	8,683 (59.5)	9,191 (61.4)
	정규직	6,405 (62.9)	6,757 (70.8)	6,659 (72.5)	7,184 (75.7)
	비정규직	987 (25.7)	1,405 (30.5)	2,024 (37.5)	2,008 (36.6)
건강보험	전체 임금근로자	7,785 (55.5)	8,422 (59.5)	8,945 (61.3)	9,264 (61.9)
	정규직	6,681 (65.6)	6,919 (72.5)	6,782 (73.8)	7,196 (75.9)
	비정규직	1,105 (28.8)	1,504 (32.6)	2,163 (40.1)	2,068 (37.7)
고용보험	전체 임금근로자	6,730 (48.0)	7,048 (49.8)	7,601 (52.1)	7,943 (53.1)
	정규직	5,722 (56.2)	5,701 (59.7)	5,655 (61.5)	6,050 (63.8)
	비정규직	1,007 (26.2)	1,347 (29.2)	1,946 (36.1)	1,893 (34.5)

주 : ()안의 수치는 각 고용형태 중 가입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목할 부분은 2004년 까지 증가추세에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이 2005년 들어 소폭 감소하였는데, 정책당국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4]